

현대 한국인의 윤리의식과 근대 일본인의 신국의식

김채수*

국문초록

일본인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세력의 동진에 대처해가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국을 '신국'(神國)이라 규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황국국민교육으로 통해 그러한 사상을 자신들과 식민지의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주입시켰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현재까지도 당시 그들로부터 주입된 그러한 허구적이고 자기기만적 사고로부터 완전히 탈피해 나오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

현대 한국인의 윤리의식은 일제강점기에 주입된 그러한 허구적이고 자기기만적 사고에 기초해 형성되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된 그러한 허위적 사고가 해방이후의 근대화 과정에서 해체되거나 정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유는 해방이후 전승국 미국이 또 다른 전승국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의 전 유라시아 대륙화 추진에 대항해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추진시켜나가기 위해 패전국 일본과 일본의 식민지국이었던 한국을 하나로 묶어서 공산주의 세력의 남진의 방패 막으로 활용되는 데 급급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우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갑질'적 행위나 '미투' 운동의 야기원인이 다름 아닌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그러한 자기기만적 '신국'의식으로부터 그 기원이 도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볼 수 있다.

주제어: 신국의식, 현대 한국인의 윤리의식, 정한론, 요시다 쇼인, 일제강점기, 진구황후

* 전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I. 서론

윤리란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규범,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추구해 가는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해 볼 수 있다. 필자는 근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등과 같은 시위들을 목격해오면서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고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본고를 통해 현대 한국인의 윤리의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은 특히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들이 취한 재판 불응내지 회피 태도 등을 비롯한, 친박 단체의 끈질긴 「태극기 집회」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지속적 목격이 직접적 동기라 말할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불응, 회피의 태도는 그야말로 자기들을 대통령으로 공인했던 법적 근거인 국법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행위에 틀림없다. 현시점에서, 국가문란 없이, 그들이 구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철저한 국법준수 태도 발휘를 통해서 일 수 밖에 없는데, 그래야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국민들도 관용의 미덕을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들의 국법의 무시 내지 도외시라고하는 그러한 사고는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던 것일까? 또 그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를 옹원하는 자들의 법적 개념과 법 감정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것 또한 어디로부터 유래된 것인가? 그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는 필자로서는 그들의 그러한 행태들이 결코 이해될 수 없다는 입장이 취해지는 것이다. 그들의 사고와 그러한 사고를 지닌 자들을 지지하는 자들의 사고들은 우리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들의 논리적 사고의 기반은 과연 무엇인가? 그 기반은 그들에게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필자가 본고를 통해 규명해 내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박근혜와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들은 같은 한나라당 출신들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외에 그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들이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¹⁾ 전자는 그의 친딸이었고, 후자는 현대건설 입사 때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조치'로 현대건설 입사가 이루어져²⁾, 그 후 현대건설과 박정희 대통령의 연결고리 역이 되어, 입사 12년 만인 35세의 나이에 현대건설 사장에 올랐던 바로 그러한 위인이었다.³⁾ 그런데 필자

1) 그는 그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1995,김영사)에서 35세에 사장이 된 그의 고승송진과 관련하여서 「내 뒤에 박대통령이 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p.159)라고 말하고 있다.
2)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입사과정에서 「학생운동 전력」이 문제가 되어 입사 길이 막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자신의 사정을 적은 편지를 박정희에게 발송해 당시 청와대의 민정담당비서관 이낙연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결과 결국 입사가 이루어졌다.[이명박 저『신화는 없다』p.89] 정주영의 전언에 의하면,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이명박이라고 있지요? 아주 고약한 여석인데, 정치권에 기웃거릴 줄 알았는데 현대로 갔더군요. 인간 좀 만들어보세요.”라는 말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더라는 것이다.

가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박정희와 이명박 전직 대통령 둘 다 남다른 일본 체험들을 행했던 인물들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의 육사출신이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일본 오사카에서 1941년에 태어나 해방직후까지 일본에서 성장했던 자였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일본에서의 성장은 5세까지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성장기의 일본체험에 대한 기억은 전무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 그러나 그의 가족에게서의 일본이란 「뽕밭과 설움의 땅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다.²⁾ 그의 말대로 일본체류 시에 그곳에서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가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 어떤 민족적 감정 등과 같은 것은 당시 아마도 느껴보지는 못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일본에서 태어나 5세까지 성장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의 일본에 대한 태도가 아마도 암암리에 달라졌을 것이다. 자신의 생이 일본에서 출발되었다는 의식 때문에 그의 일본에 대한 의식이 그의 뇌리에 부정적으로는 각인되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설이 대선과정에서 세간에 떠돌기도 했었다.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에 의한 소문에 불과한 것이다.⁵⁾ 그렇다면 귀국 후 그의 일본관은 어떻게 형성되어 나갔던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의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하나의 입장을 가져볼 수 있다.

그가 들어간 대학은 당시 주로 지방 출신들이 가는 ‘민족의 대학’으로 알려진 고려대였다. 1964년 대학 4학년 때에 한일협정 반대 투쟁이 대학가에 일어났다. 당시 그는 상과대 학생회장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의 주동자로 몰려 지명수배가 되자 자수했다. 결국 6개월간 복역했다. 대학 졸업

- 3) 이명박이 현대건설에 입사한 것은 1965년이었고, 박정희의 대선공약(1967.4)으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1968.2~70.7)이 현대건설 등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1976년 현대건설이 정부의 적극적 뒷받침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 항 건설 수주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기업의 중동진출이 이루어졌다. 현대건설은 그 진출을 기해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현대건설의 이러한 건설 참여는 현대건설의 정주영과 박정희와의 정경유착을 통해 행해졌고, 이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 4) 그의 호적에 의하면, 그는 1941년 12월 일본 오사카부(大阪府)에서 출생해 1945년 11월에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호적에, 돌림자 상(相)을 이어받아 “상정”(相定)으로 올랐다가, 얼마 후 그것을 포기하고 일본에서 썼던 “명박”(明博)으로 고쳤다. 일본 이름 “명박”은 일본어로는 “아키히로”로서, 일본에서는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의 일본천황 이름 히로히토(裕仁)를 연상시키는 이름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 5) 그는 대학4학년 1964년 6월에 한일국교반대시위로 인한 내란선동죄로 서대문형무소에 들어가 그 10월까지 6개월간 형무소생활을 했다. 서울에 거주했던 모친이 면회 온 것은 9월말, 딱 한 번이었고, 그 면회도 모친은 「얼굴 봤으니 됐다」면서 5분 일찍 면회를 끝냈다. 그 때 모친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명박아, 나는 네가 별볼 없는 놈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너야말로 대단한 놈이더구나. 나는 네 소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네 소신대로 행동하거라, 어미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81면) 그는 모친이 당시 몸이 편찮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 면회가 있는 지 2개월 반 만에 세상을 떠셨다. 그러나 면회의 횡수와 면회 때의 모친의 언행은 그 소문의 진위여부를 필자로 하여금 다시 더 한번 생각해 한다.

후, 학생운동 전력으로 인해, 취업 길이 막혔다. 그는 현대건설의 입사과정에서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른 후 입사가 여의치 않자, 청와대의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서신을 보냈다. 그 결과 그에게 현대건설의 입사 길이 열렸다. 이 경우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한일협정에 그가 반대했던 것은 비단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다 반대했었다. 그가 그 시위에 적극 가담했었던 것은 그가 상과대 학생회장이었고, 또 총학생회장 대리 역을 맡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그를 교도소에 처넣은 장본인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닌 바로 그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취직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의 그러한 행위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해되었을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사범학교(62년 이후는 경북대 사범대) 졸업 후 문경에서 3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제직 중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에, 자신이 합격만 되면 일본제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취지의 혈서편지를 보내 결국 입학할 허가를 받았다. 그는 졸업 성적 석차 1등으로 졸업했다. 또 다시 그는 성적우수자로 추천되어, 본국의 일본육사의 57기로 입학해, 1944년 성적 석차 3등으로 졸업했다. 그 후 그는 일제의 패전 시점까지 만주에서의 한국의 독립군이 내포된 중국 팔로군 토벌이 주된 업무였던 관동군 장교 직을 수행했다.

이렇게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신을 접해 그의 뜻을 관철시켜 주었던 것은 분명 박정희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자기의 경우와 같이, 생명을 건, “정면 돌파”라고 하는 술책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확인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그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혈서편지를 써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만무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러한 비슷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이 일본인들과 동거 동락해오던 과정에서 일본문화의 정수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 가서 동일한 것들을 체득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박정희전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의 입학을 목표로 해서 정면 돌파 술을 쓴 것은 아마도 그가 일본의 군국주의 문화에 정통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마쿠라(鎌倉)시대(1192~1333)이래 760여년 이상 지속되어 있던 일본의 군국주의문화의 정수는 무사도정신에 기초해 있다. 무사도정신이란 무사의 주군에 대한 충성심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충성심이란 무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형성되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만주군관학교장의 입장에서 이해된 박정희의 혈서는 일본제국에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졌을 것이고, 그의 그러한 정면 돌파 행위 또한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읽혀지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날려 보낸 정면 돌파 술도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그와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 졌을 것이다.

일제는 박정희 대통령을 받아들여 군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시킨 후에, 그로 하여금 주권인 천황을 위해 생명을 바쳐 독립군 토벌작업에 임해갈 것을 요구해왔고, 또 사실상 그는 일제의 그러한 요구를 착실히 수행해왔던 자였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러한 정면 돌파 술을 받아들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일제의 그러한 요구에 응해왔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차후 자신의 어떤 요구에 혼신을 바쳐 응해갈 것이라 확신했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그를 현대건설에 입사시켜주고 또 그를 사주 정주영에게 리마인드(remind) 시켜 줌으로써 그를 통해 현대건설과 청와대와의 정경유착의 고리역을 담당케 해 갔었다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남다른 일본체험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을 했었다고 하는 것이다.

친박 단체의 태극기집회 회원들도 박근혜의 탄핵재판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그러한 입장은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법에 순응치 않으려 하는 그러한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는 과연 어디로부터 유래된 것인가? 우선 우리는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훌륭한 정치가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사실상 그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 행했다고 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쩌서 그에게는 그러한 지지자들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단 한가지이다. 그것은 그가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관 과연 어떤 인물인가?

현재 그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타나 있다. 한편에서는 그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산업화의 기틀을 세운 자로, 다른 한편에서는 독재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적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꼭 그렇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우선 그들이 친일 내지 친일·미 세력들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특정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한 박정희의 그 독재성과 친일전력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한 나머지,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의 문제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감히 말해볼 수 있다.

독재자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가는 법을 자기만 유독 지켜가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법을 지켜야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천황이 바로 그러한 자였다. 그는 헌법위에서 군림했던 자였다. 그는 헌법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초법적 존재로서 당시의 제국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⁶⁾ 그런데 필자가 말

6) 「대일본제국헌법」의 제1조에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천황은 신성하여 범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이 일본인들로 하여금 그를 「현인신」(現人神)으로 인식케 해왔던 된 것이다. 패전을 계기로, 맥아더는 친히 천황으로 하여금 「인간선언」을 행하게 했다.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친일세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자신들의 선대들이 숭앙했던 바로 그러한 천황과 같은 존재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마치 자신이 천황이나 되는 양 법 위에 군림하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토록 지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의 부친의 그러한 독재성과 친일적 사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그에게 무의식적 차원에서 깊숙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어쩌서 그러한 독재성과 친일적 사고에 깊숙이 빠져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인가? 본고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을 통해 현대 한국인의 윤리의식의 형성경위와 그 특성 등을 고찰해보고 그것을 통해 그것이 지닌 문제성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현대 한국인의 윤리의식의 특징

1. 현대 한국인의 윤리의식과 일본인의 윤리의식

한 번 더 말하지만 인간들에게서의 윤리란 그들이 소속된 집단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가리킨다. 도덕이 심리적 차원이나 혹은 정신적 차원의 것이라면, 윤리는 그러한 것들이 말이나 행동의 차원으로 구현된 것들로 규정되어질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윤리란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들의 기초를 이루는 물리적 생물학적 자연이 취하고 있는 질서들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름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러한 질서들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사회적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켜 내기 위한 한 방안으로 확립시켜 낸 말이나 행위 차원의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란 어디까지나 인간들이 소속해 있는 사회적 집단들 바로 그것들이 취하고 있는 질서이지 그 집단들의 구성원들 개개인 차원의 행동이나 의식 차원의 질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윤리에서 말하는 개개인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 질서나 도리란 그 개개인이 소속해 있는 사회 그 자체가 지닌 것들이지 개개인들의 행위나 의식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위로부터 ‘윤리적 문제’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 행위가 사회적 질서와의 부합여부에 대한 문제를 가리킨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단적으로 말해 인간들에게서의 윤리의식이란 그들의 소속 집단들의 개개인들이 그 집단들 내의 질서들을 지켜가려는 의식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현대 한국인들에게서의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란 현대 한국인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사회의 다양한 질서들을 행위의 레벨에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식과 그러한 자세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컨대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말이나 행동으로 반갑다는 인사를 행해가려는 의식이라든가, 혹은 인간들이 교통신호를 지켜가려는 의식 내지 자세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한국인들의 경우는 이웃나라의 일본인들에 비해 그러한 윤리적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인사나 교통신호 등과 같이 서로 다 같이 지켜가야 할 것들을 일본인들의 경우만큼 제대로 지켜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의 비율 하나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명확히 드러난다.⁷⁾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일차적 이유는 한국인들보다 일본인들의 경우가 준법정신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째서 한국인들의 준법정신은 그들의 경우보다 더 약한 것인가? 그것은 우선 우리가 한국인들에게서의 자기 자신들과 사회에 대한 인식들이 일본인들의 경우와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러한 인식들과 일본인들의 그것들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 문제부터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사회의식과 자아의식 등 같은 모든 의식들의 주체는 개개인들이다. 현대인들의 경우, 그러한 개개인들이 그 구성원들의 일원으로 속해 있는 사회적 단위들은 가족, 회사, 국가, 인류 등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인의 경우 개개인의 삶과 가장 밀착된 사회집단은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사회라 일컬어지는 일본의 경우는 가족보다는 국가이다. 그 이유는 일본이 근대화과정에서 천황을 주축으로 한 가족국가를 지향해 왔고, 그러한 지향의지는 아직도 그 뜻을 완전히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일본인들에게서 그러한 의지가 해소되려면, 일본이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갖춘 '보통국가'로 전환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본인들에게는 근대화 과정에서 개개인의 행불행이 국가의 책임이지 가족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그것이 정반대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차원의 사회가 아니고, 전 한국인들로 구성되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이다.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전 국민적 차원의 어떤 국가적 대사를 치러가야 할 때에는 그 일에 대해서 일본인들에 비해 지극히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러한 소극적 입장들을 취하는 나머지, 어떤 극단적 경우에 가서는 그러한 국가적 대사에 대해 불참해 버리는 입장들을 취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자기 자신은 불참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자기는 불참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일본인들의 경우는 어떤 국가적 대사에 자기는 불참해도 된다는 생각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국가를 통치해가는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 자신들에게는 마치 태양과도 같은 존재라는 의식이 그들

7) 한국은 2014년 OECD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폴란드에 2위로 집계 되었다.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2. 현대 한국인의 사회의식과 자아의식

한국인들이 그러한 일본인들과는 달리 어떤 국가적 대사들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에 근거해서라 할 수 있다. 우선 하나는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생각에 입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류사회를 위해서라면 몰라도, 국가라고 하는 인간집단을 위해서는 별로 할 맘이 내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가들에게는 국가란 국민의 복리(福利)추구의 수단이라는 의식보다는 국민들이란 국가존립의 수단들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다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박혀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가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일제의 존립수단으로 존재했었지 일제가 한국인들을 위한 수단으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현대 한국인들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나는 타자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불참해도 된다고 하는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타자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의식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것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집단의 일원으로서 타구성원들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거나 혹은 열등하다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다 같이 행해갈 때, '자기는 빠져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한다. 인간들에게서의 그러한 심리는 자기가 타자들보다 더 열등하다, 라고 하는 의식보다는 자기가 타자들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작용한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타자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기에 대한 의식, 즉 자아의식이 존재한다.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에게는 자신들이 소속된 자신들의 가족이나 혹은 국가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들에 대해 가족이나 혹은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행해가지 못하게 될 때는 자기 자신들이 그것들의 뉘까지를 행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경우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을 통해 모든 것을 행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강한 자아들을 형성시켜 가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들을 형성시켜가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아들을 반복적으로 의식해가야 한다. 현대 한국인들은 국가에 대한 의식보다는 자아들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하다.⁸⁾ 그 이유는 국가가 개개인

8) 일본의 근대문학과 근대철학 연구자들에게 '근대적 자아'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일본이 근대화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말이다. 이 말은 근대사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대천황제국민주의국가에 기초해 형성되어 나온 '자아'를 말한다. 이렇게 근대천황제국민주의국가를 통해 형성되어 나온 '근대적 자아'에는 '국가'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들에 대해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행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한국인들이 타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지나친 우월·열등감이나 우월·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지나치게 강한 자아의식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의식들이란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자기중심적 사고형의 인간들은 자아의식이 강한 인간들로서 그들에게서의 사회의식이란 자연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대 한국인들 중에는 바로 그러한 독선(獨善)적 자아형의 인간들이 집단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이다.

3. 현대 한국인의 윤리의식과 독선적 자아의식

해방이후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은 해방공간, 분단 상황,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체제 등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나왔다. 그러한 상황들에서의 가족이나 국가는 그것들의 구성원들인 개개인들이 그들 자신들의 삶을 실현시켜 갈 때 그것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해 가지 못했다. 그 결과 그들의 사고는 사실상 자기중심적으로밖에 형성되어 나올 수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들에게서의 윤리의식이란 자아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된다. 따라서 자아의식이 지나치게 강한 인간들에게는 윤리의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그 결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윤리의식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강한 자아의식은 우선,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처럼 ‘내가 해야 한다’, ‘나는 해도 된다,’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 등과 같은 독단적 혹은 독선적 자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그러한 의식이 그로 하여금 5.16정변을 일으키게 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의식을 가진 자들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지켜야 할 것들을 제대로 지켜갈 리가 없는 것이다. 필자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한국인들 중에서 적잖은 자들이 이러한 독단적이고 독선적 자아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또 다름 아닌 바로 그러한 인간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그러한 위법행위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준법정신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전관예우’ 등과 같은 말들이 범조계에서 회자되고, 또 사법부의 판검사들의 태반이 대통령의 시너역할을 행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 이유로 인해 현대한국사회에서 경제력이 허약하고 또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갈 수 없는 약자들의 경우는 강자들에 짓눌리고 짓밟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국가가 우리 개개인들에 대해 그것들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해 내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떨어진 고난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 보려는 과정에서 지나치

‘근대적 자아’와 같은 용어는 없고, 또 ‘자아’라는 말 속에도 ‘국가’라는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

게 깊숙이 자아의식 속으로 함몰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식 속으로 그렇게 깊숙이 함몰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도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과연 무엇을 잘못했었는지를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친 박 단체의 구성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과를 명확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해서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이해해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따지려 하지 않고 정치력을 동원해 자신의 비리를 덮어버리려는 입장을 취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것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요구된다.

우선 우리는 박근혜, 이명박,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 예컨대 친박 단체나 혹은 그들의 소속정당원들의 자아에 대한 의식들이 그들의 정치적 반대세력의 인간들의 것들과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입장이 취해진다. 우선 그들은 한국이 완전한 법치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대다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후예들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일본의 제국주의 정신을 체득한 자로서 전전과 전후에 걸쳐 친일파의 주축이 되어온 인물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 우리 독립군의 활거지 만주지역에서 독립군포획의 임무를 수행해가는 일제 관동군의 일원으로서 활약해왔던 자였다.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해 일제강점기 우리민족의 반역자였던 것이다. 그의 그러한 행위는 우리민족보다는 우리민족을 지배해가는 일본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또 그의 그러한 행위는 타자들의 삶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우선에 둔 삶이었던 것이었다. 해방 후 그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일본인들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한국인들의 삶보다는 자신의 삶을 우선에 두었다. 또 그는 일본인들의 경우처럼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이 아니면 동아시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아니면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결국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유지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의 반공정책의 선두에 서서 미국을 지지기반으로 해서 독재정치를 행해 갔다. 그가 그러한 독재정치를 행해갈 수 있었던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독선적 자아가 강하게 작용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후계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친박 세력을 비롯한 그들의 지지자들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선적 자아의 소유자들임에 틀림없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국가나 민족보다는 개인이나 자기의 가족을 우선시했던 인간을 지지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과 그들에게서 그러한 독선적 자아는 과연 어떻게 형

성되어 나온 것인가?

III. 한국인의 독선적 자아의식과 일본인의 「신국」 의식

1. 현대 한국인들의 근·현대화 체험

해방직후 현대 한국인들은 우선 미군정이 행해갔던 정치를 체험했다. 그 다음은 그 정치적 결실을 발판으로 출현한 친미·친일세력들이 세운 정부, 즉 이승만·박정희정부가 행해갔던 반공정책에 입각한 흉악한 독재정치들을 체험해 왔다. 이들 독재자들이 추진해갔던 주된 정책들이란 우선 일차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에 대항해 가기 위한 목적 하에서 형성된 미·일의 군사적 연대에 기초해 세워진 반공정책이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이 반공정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온 정책이 다름 아닌 바로 친미·친일정책들이었다. 따라서 해방이후의 현대 한국인들은 이들 독재자들의 영도 하에서 추진된 현대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진영의 맹주였던 미국의 반공산주의사상을 수용해 가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 전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정책과 그 추진 정신을 계승해 간다는 입장을 취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현대 한국인들이 행한 이러한 현대화 체험은 일제를 패망시킨 미국의 주도하에서 근대화과정에서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제와 더불어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저지해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현대 한국인들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반공세력의 남하 저지라는 대의(大義) 하에, 우선 대외적으로는 해방 전 일제가 저지른 한국침략의 죄과가 그대로 매몰 되어버리는 것을 목격했고, 또 대내적으로는 일제의 한국지배에 적극 동조했던 친일세력들이 해방이후 정치적 권력과 경제력을 재차 장악해가는 것을 체험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전 친일세력들이 저질렀던 반민족적·반사회적 행태들이 윤리적·도덕적 차원에서 그 나름의 정당성들을 획득해가는 양상들을 역력히 체험해 왔다.

해방 전 일제가 추진해갔던 식민지정책이란 한마디로 말해 대륙침략 기지건설의 일환으로서의 한국의 산업화와 한국인의 황국신민화였다. 해방이후 일본을 지배해가던 미국이 특히 6.25전쟁이후 우선 일차적으로 취했던 정책은 일본이 보유한 전쟁경험을 대륙의 공산 세력의 남하저지에 활용해가기 위한 한 방안으로 취한 친일정책이었다. 미국의 그러한 정책에 편승해 한반도의 남한에서 재등장한 세력이 다름 아닌 바로 일제강점기의 친일세력이었다. 그 세력을 배경으로 해서 출현한 박정희 대통령이 재직 때 추진했던 현대화정책은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이었다. 전자의 산업화는 일제강점기 일제의 매관자본(買辦資本)과 대륙침략 기지건설의 일환으로 추진시킨 산업화를 기초로 해서 해방이후의 친일·친미세력들을 통해 추진된 것이었다. 후자의 새마을운동은 강점기 일제의 총독부가 친일파들을 전위대로

세워 추진해갔던, 농촌진흥운동(1932~1940), 심전(心田)개발운동(1935~1940), 국민정신총동원운동(1937.9~해방) 등에 기초해 성립된 것들이라 말할 수 있다.⁹⁾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한국인들을 상대로 식민지정책들을 실행해 갔던 과정에서 행했던 이러한 운동들은 일제가 민족동화정책의 일환으로 행했던 황국신민화 정책의 실천운동 들이었다.

강점기 한반도에서의 황국신민화 정책이란 총독부의 관료들이 한국인들을 자기들과 동일한 황국신민으로 전환시켜 가기 위해 취한 정책을 말한다. 일제가 근대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체제로 확립시켰던 것은 천황제였다. 그런데 이 천황제를 지탱시켜왔던 삼대기둥은 고급관료의 양성기관인 제국대학, 국방을 책임 짓는 장교들을 양성하는 사관학교, 그리고 황국신민교육 즉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사범학교이었다. 이들 세 기관들은 천황의 직속기관들이었다.¹⁰⁾ 강점기 조선에서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해갔던 기관은 조선총독부였다. 그런데 그 기관 소속의 일본인들은 태반이 이들 세 기관들의 출신들이었다. 초대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852~1919년)를 비롯한 모든 총독들이 이들 천황직속기관들 출신이었다. 이들 천황직속기관들의 장(長)들은 천황이 직접 그들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친임식(親任式)이라는 형식을 취해 천황이 직접 임명한 자들이다.¹¹⁾ 사실상 조선총독부의 관료들은 천황이 '태양신의 후손'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국가신도(國家神道)의 일급 신도(信徒)들이었다. 이들은 일본제국을 태양신의 후손인 현인신(現人神)인

9) 심전(心田)개발운동은 총독부가 당시 조선인들의 육체와 정신을 개발해 그것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해가기 위해 전개시켰던 대중운동이었다. 특히 1931년부터 총독부가 당시 침체해 있던 불교계를 활성화시켜 그것을 일제의 대륙침략에 활용해 가기 위해 전개시킨 국민대중화 운동이었다.

10) 일제 강점기의 제국대학은 천황이 직접 발하는 법령, 즉 칙령에 의해 「제국대학령」(1886.M19) 의해 세워진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이었다. 일본에 군의 장교양성기관인 사관학교가 설립된 것은 1872(M5)이었다. 일제 강점기 군대는 천황 직속의 기관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군대가 '천황의 군대'로 일컬어졌다. 천황은 평상시에는 「참모본부」(參謀本部)를 통해 전시에는 「대본영」(大本營)을 통해 군대를 관리해 갔다. 제국헌법 규정에, 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군부대신(軍部大臣)은 현역육군무관(한때는 예비역까지 가능)으로 임명되어야 하고, 육군대신이 반대하면 각의(閣議)의 의결이 불가능하며, 또 육군에서 육군대신을 추천하지 않으면 조각(組閣)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군 최고의 통수권자인 천황은 바로 이러한 규정을 통해 내각으로 조절해 갔었던 것이다. 사범대학은 교원양성기관으로 칙령 「사범학교령」(1897.M30)을 발해 설립한 기관이다.

11) 메이지유신 때부터 패전 시점까지 이들의 입관식 때나 혹은 사관학교·제국대학·사범학교 졸업식 때 성적우수자들에게 천황의 은사(恩賜)로 은시계(銀時計)가 수여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활용되어, 총독부에서는 3.1운동이후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한 제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친일파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회를 개최하고 기념품으로 그들에게 시계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관행은 해방 후에도 지속되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도 지속되었고,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자들에게 「문재인 시계」를 돌렸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정부가 추진해가는 「적폐청산」 대상의 하나라 말할 수 없다. 사이토 총독 때에는 총독부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것을 시궁창에 버리고 간 자도 있었다고 한다. 그것으로 인해 집안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될까 염려가 되어서였다. [姜東鏞『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1920年代を中心として』(東京大出版会, 1979), pp. 12~14] 근래에는 과연 몇 명이나 그것을 시궁창에 처넣어 버렸을까? 어쩌면 몇몇의 부인들이나 아들이 살짝 쓰레기통에 처넣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천황이 다스리는 신국(神國)으로 인식했고, 또 자신들을 그 신국의 신민(臣民)의 대표자들로 믿고 있던 자들이었다. 현재 우리는 강점기 그들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적극 동조했던 자들을 친일파들이라 말하고 있다.

당시 그들의 그러한 정책에 동조했던 자들 중에는 크게 나누어 두 부류의 인사들이 있었다. 우선 하나는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다 바쳐 완전 천황의 신민(臣民)이 된 자들이다. 그들 중에서는 일제의 고급관리가 되어 한국인들을 일제의 대륙침략사업에 적극 동원시키는 역할을 행해왔던 자들이었다. 예컨대 그들은 일본인을 대신해 한국의 대학생들을 전지로 몰아갔고, 또 황민화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한국인들을 색출해 고문해 가는 일을 맡아하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비록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몸을 내주었지만, 마음까지는 내주지 않았던 인간들이다. 다시 말해 정신까지는 내주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일제의 대륙침략은 만주사변(1931.9)을 시발로 본격화되었다. 일제는 한반도지배를 발판으로 해서 북중국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또 일제는 만주사변을 통해 획득한 만주지역을 발판으로 해서 중일전쟁(1937.7)을 일으켜 남중국을 장악했다. 일제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온 남중국을 발판으로 해서 1939년 2월에는 동남아시아침략에 나섰다. 1941년 12월에는 결국 일제가 하와이의 진주만 공격을 시발로 해서 일제의 침략전쟁이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어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일제는 상기의 그러한 국민운동들과 정책들의 실행을 통해 한반도에 있는 인력과 자원들을 동원해 이와 같은 대륙침략, 대동아전쟁, 그리고 끝내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켜가게 되었던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의 준비가 행해지고, 또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일제는 바로 이상과 같은 운동들을 통해 우선 정신적 측면에서 한국인들을 일제의 황국신민으로 전환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은 우선 일차적으로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본어만을 사용케 했고, 두 번째로 일제의 국교 신도의 신앙적 대상인 천황을 신적 존재로 숭배케 해갔다. 세 번째로 일제는 자국 일본이 개천 이래 현인신인 천황이 다스려온 나라이기 때문에 신국(神國)이고, 또 일제의 백성들도 '현인신' 천황의 신민(臣民)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신국의 식민지인들인 한국인들도 엄연 신국인 황국의 신민들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주입시켜갔다. 넷째 일제는 한국인들이 황국의 신민들이기 때문에 황국의 확장 사업의 임무에 헌신을 다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사상을 한국인들의 뇌리에 주입시켜 갔었던 것이다.

2. 근현대화의 추진세력과 메이지초의 정한론

우리가 한국에서의 현대의 기점을 해방 시점으로 본다면, 근대의 기점은 일본으로부터 문호개방을 당한 시점, 즉 일본과의 강화도조약(1876)이 맺어진 시점으로 보거나, 혹은 청

일전쟁(1894.7)의 원인이 된 동학혁명(동년)이나 그 과정에서 일제의 내정간섭의 결과로 인해 야기된 갑오경장(동년)의 시점 정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들 역사적 사건들은 제1~2차 동학혁명(1894.2~5)을 제외하면, 모두가 일제의 강요에 의해 행해진 것들이었다. 일제의 그러한 강요는 한반도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든다는 목적 하에서 행해졌었고, 그 목적이 결국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결국 한반도에서의 근대화가 일제의 한반도 침략의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 취해지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근대화가 일제의 개입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일제와의 을사보호조약(1905)이 체결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추진이 한국인들의 자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그 체결 이후 한반도에서의 근대화의 추진은 일제에 의해 주도되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체결 시점에서의 근대화란 언론, 출판, 근대적 학교 교육, 철도·전기시설 등과 같은 공업화, 은행·신 화폐 발행 등의 금융사업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근대화의 추진세력들이란 일제의 한국지배를 위한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진 자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제의 천황제를 지탱해가는 일제의 제국대학·사관학교·사범대학 출신들을 주축으로 한 제국주의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의 제국대학의 첫 출현은 1886년의 시점이었다. 그것은 도쿄대학(설립 1877년)의 「제국대학」(帝國大學)으로의 개명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관학교의 경우는 1874년 육군사관학교의 설립(해군사관학교 1876)을 계기로 해서, 사범학교의 경우는 1871년 도쿄사범학교의 설립을 시발로 해서 이루어졌다. 「제국헌법」이 발표된 것은 1889(M22)년이고, 「교육칙어」가 발표된 것은 그 다음해였다. 메이지유신(1868)에서 이것들의 발표시점까지의 20여 년간 메이지정부가 추진시킨 제1차적 핵심적 사업은 문호개방기(1854~1867)에 양학과와 원조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년)이 주장한 존왕양이(尊王攘夷)와 정한론(征韓論)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의 기초를 세우는 작업과 히라타(平田)국학파가 주장한 신도의 국교화를 추진시켜나가는 작업이었다.

쇼인의 존왕양이론은 천황을 내세워 그를 중심으로 국력을 규합해서 일본을 위협하는 서구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그의 정한론은 고대에 한국이 일본의 관할 하에 있었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에 근거해 행한 주장으로서, 일본이 동진하는 서구세력을 물리치려면 서구세력이 한반도를 점령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한국을 무력으로 점령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존왕양이론은 사실은 황국사관의 이론적 초석을 세운 후기 미토학파(水戶學派)의 대표적 학자 아이자와 세이시사이(會澤正志齋, 1782~1863)의 『신론』(新論, 1825)에 근거한 것이었다. 사실상 메이지유신은 요시다 쇼인 등이 주장했던 존왕양이론에 입각해 행해진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일으킨 중심적 세력들은 문호개방기에 최초로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의 후예들이었던 조슈번(長州藩)의 하급무사들과 그들과 손잡은 사쓰마번(薩摩藩)의 하급무사들이었

다. 예컨대 메이지혁명의 주체세력들이란 1868년 3월에 발표한 혁명공약의 성격을 띤 「5개조 서문」(五箇條の誓文)의 작성자,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1833~77)를 비롯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등과 같은 조슈번의 소카 손주쿠(松下村塾) 출신의 쇼인 문하생들이었다. 소카 손주쿠는 쇼인이 죄인의 몸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숙(私塾)이었다.

사실상 「정한론」(征韓論)은 메이지 초년에 「이와쿠라견외사절」(岩倉遣外使節, 1871.10~1873.9)이 구미로 떠나기 이전에 기도 다카요시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참의(參議)에서 합의되지 않아 입안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견외(遣外) 중에, 국내에 남아 있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7~1877)에 의해 재차 거론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사족(土族)들의 불만이 점점 더 과격해져 갔었기 때문에, 한국정벌을 통해서 그들의 불만을 무마시켜주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한론은 결국 견외에서 귀국한 사절단의 반대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자 정한론자들은 1873년(M6) 정계로부터 하야한다. 그 정변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 정벌의 추진은 중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필자는 그것을 중단으로 보지 않고, 다만 형태를 달리해 삼분화 되어 행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3. 정한론의 변형과 그것의 추진과정

우선 하나는 무력행사가 동반된 외교술의 도모와 그 전개를 통한 정벌의 추진이었다. 그러한 추진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미 견외사절단 참여를 통해 서구열강의 외교술을 터득한 자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이고 등이 주장한, 전쟁 등과 같은 무력을 통한 정벌이 아니라,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을 상대로 서구열강들이 행했던 그러한 외교술을 통한 점진적 정벌이었다. 그런데 이 정벌방법을 택한 자들은 전쟁을 통한 정한론에 반대했었던 이와쿠라 도모미, 이토 히로부미 등과 같은 조슈번 출신들 중심의 인사들이었다. 이 추진세력의 일차적 임무는 한국의 문호개방과 그것에 후속되는 불평등조약의 체결이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민권신장과 국권확장을 통해 조선인들의 민권을 신장시켜 조선을 청국으로 독립시켜낸 후의 정벌 방법이었다. 그것은 하야세력들 중의 일과였던 도사번(土佐藩)의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1837~1919), 고토 쇼지로(後藤象郎, 1838~1897)와 그들에 동조했던 동북 규슈지역의 나카쓰(中津) 번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등이 주축이 되어 한국의 반청(反淸) 세력과의 연계를 통한 추진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는데 있어 일차적 난관은 청의 개입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 조선은 병자호란(1636) 이래 청의 책봉국(冊封國, 종속국) 상태의 국가였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국정벌을 기도했던 일본정치가들의 대다수는 그 일차적 단계가 일본이 조선을 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에서의 반청세력을 규합해 그들

에게 힘을 실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조선을 청으로부터 독립시킨 후에 그들로 하여금 조선의 정부를 장악해 해서 그들을 발판으로 해서 조선을 정복시켜 간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그러한 정복의 제1차적 단계는 조선에서의 친일파의 양성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일본의 조선침략정책의 첨병(尖兵) 역의 행사를 통한 추진방법이었다. 1873년(M6) 무력을 통한 정한론이 중단되자, 정계를 하야한 다음, 규슈 남단의 자신의 사쓰마(薩摩)번으로 귀향해 그곳에서 사립 병학교(兵學校)를 세워 불만 사족들을 교육시켜 갔던 사이고 다카모리의 지지자들이 선택한 추진방법이었다. 사이고와 함께 하야한, 규슈의 동북쪽의 히젠(肥前)번 출신의 에토 신페이(江藤 新平, 1834~1874)는 그 번 내의 사가(佐賀)에서 「사가의 난」(佐賀の亂)을 일으켰다가 처형된다. 이어서 1876(M9) 폐도령(廢刀令)이 내리자, 규슈의 중동 쪽의 구마모토(熊本) 지역에서 신풍련(神風連) 등과 같은 반란이 일어나는 등, 그 규슈지역에서는 정한론의 중단에 좌절한 사족들의 반란들이 잇따랐다. 그러자 사이고가 설립한 사학교의 각 분교들이 1877년(M10)에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켜갔다. 그러자 사이고도 그것에 동조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세이난(西南) 전쟁으로 전개되어 나갔던 것이다. 그것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사이고는 결국 자인했다. 그렇게 정한론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관철되지 않자 정계를 떠나 하향한 사이고가 이 사학교를 설립했던 목적은 외정(外征)에 필요한 강한 군인들을 양성해 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슈 지역의 각 곳에 분교들을 설립했다. 세이난 전쟁은 9개월간 지속되었고, 전쟁의 종결로 결국 사학교는 폐교되었다. 일본에서의 우익단체의 기원은 바로 그 사학교 출신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우익의 원로는 그 사학교를 설립한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이지유신을 일으킨 주역들이 주장한 정한론이란 그들이 서구열강의 동진에 대항해 나가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그러한 정한론을 폐기해버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의도했던 전쟁이라는 형태를 다른 형태들로 변형시켜 추진해 갔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 변형된 첫 번째의 형태가 다른 아닌 바로 강화도조약(1876)을 1단계로 해서 추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강제적 문호개방이었고 또 불평등조약이었다. 일본의 국경을 장악한 견외 파 정치세력은 바로 그 조약을 통해 한국정벌의 1단계를 추진시켜 냈던 것이다. 그 다음 그것의 2단계는 청일전쟁(1894~95)으로, 3단계는 한일합방(1910)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 변형된 두 번째 형태는 조선에서의 청으로부터의 조선독립을 실현시키려는 개화당에 대한 경제적 원조와 청의 종속국 상태에 처해 있는 조선인들의 민권·국권신장의 조장을 통해 정한론을 추진시켜간다는 것이었다. 이들에 의해 추진된 1단계는 김옥균 등의 개화파 세력들로 하여금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해 하도록 배후에서 그들을 조절해 일으켰던 갑신정변(1884)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다음의 2단계는 청일전쟁 하에서의 갑오경장의 단행이 다른 아닌 바로 그것이었다.

세 번째 형태는 사이고 다카모리의 후예들이 우익(右翼) 활동을 통해 정한론을 추진시켜 간 것으로서 그들이 행해왔던 제1차적 단계는 일본국내에서의 민간차원에서의 정치결사(政治結社)들의 조직이었고, 그 다음 단계는 그 결사들의 조직원들이 조선으로 건너가 정한실천을 위한 정보수집과 이면공작을 행해가는 작업이었다. 일본 내에서 설립된 최초의 우익단체는 세이난 전쟁이 종료된 그 이듬해인 1878(M11)에 결성된 향양사(向陽社)였는데, 그것은 「사가의 난」에 참가했다가 투옥된 바 있던 하코다 로쿠스케(箱田六輔, 1850~1888)가 주축이 되어 규슈의 동북 편에 위치한 후쿠오카 지역에서 결성된 것이었다. 이 경우의 「향양」에서의 「양」의 의미는 조선 방향의 해양(海陽), 즉 현해탄(玄海灘)을 의미했다. 이 향양사는 1881년(M14) 2월에 「현양사」(玄洋社, 1881~1946)로 개칭되고, 대표도 히라오카 고타로(平岡 浩太郎, 1851~1906)로 바뀌었다. 그는 그 결사의 지향이념을 「아시아주의」로 설정했다. 현양사의 주역들 중의 한 사람 도야마 미쓰루(頭山滿, 1855~1944)는 갑신정변에 실패해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을 고베에서 만나 당시의 금액으로 거금 500엔을 건넸다. 현양사는 조선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그들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현양사 회원의 9명이 부산에 상륙해 「천우협」(天佑俠)이란 단체를 만들어, 그것에 주재해 있는 5명과 합세해 도합 14명이 전북의 순창에 있는 전봉준을 찾아갔다. 그들이 혁명군들과 합세해 한성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서 청일전쟁(1894.6~95.4)이 아산 앞바다에서 발발하자, 즉각 일본군에 합류해 일본군을 위한 정찰활동을 행해갔다. 그 후 그들은 한일합방까지 일본의 조선침략의 첨병역을 수행해갔다.

필자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제는 이상과 같은 세 형태를 취해 메이지초의 정한론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갔다는 것이고, 근대한국인들은 바로 이 세 형태의 정한 추진세력들을 통해 일제를 접해왔었다고 하는 것이다.

IV. 일제의 한국침략과 일본인의 「신국」 의식

1. 메이지유신과 정한론의 출현경위

1)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목적

메이지유신이란 천황(天皇)을 주축으로 한 정치적 세력들이 도쿠가와 막부(幕府)의 쇼군(將軍)이 취해 온 봉건주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정점으로 한 근대천황제 국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단행한 20여년 간의 정치적 변혁을 말한다. 그러면 천황을 주축으로 한 정치적 세력들이 막부로부터 정치적 실권을 회수해서 그러한 정치적 변혁을 단행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천황을 주축으로 한 정치적 세력들이 근대 서구열강들의 동진(東進)으로부터 자국의 민족적·국가적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것을 극복해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국으로 인식해오던 청국이 아편전쟁(1840~42)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서구열강세력들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 또 그들은 서구의 열강들이 일본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시켜 일본으로 하여금 그들과의 불평등조약을 체결케 했고, 그 결과 결국에 가서는 문호개방 10년 만에 일본의 재래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민란이 야기되는 것을 목격해 갔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국방을 책임져야 할 바쿠후가 서구열강들의 동진에 제대로 대처해오지 못했는가 하면, 게다가 마땅히 천황의 재가를 받아 그들과의 조약을 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의 재가 없이 그러한 불평등조약을 체결해버리는 것을 목격해 가야했던 것이다.

그 결과 천황을 주축으로 한 정치적 세력들은 특히 19세기중반이후의 서구열강들의 일본침입으로 야기된 그러한 국가적·민족적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한 일환으로 그러한 메이지유신을 단행했던 것이다.¹²⁾

2) 정한론의 출현경위와 그 실행양상

사실상 메이지유신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정한론을 최초로 주장한 자는 조슈번 출신의 무사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1833~77)였다. 정한론을 관철시키려다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정계를 하야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7~77)가 아니었다. 기도는 메이지유신 직후 1871년 10월 이와쿠라(岩倉) 사절단(1871.10~73.9)의 출국이 행해지기 1년 전에 정한론을 참의에 제시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결되었다. 그의 그러한 입장은 메이지유신 이전의 문호개방기(1854~67)에 활약했던 조슈(長州)번의 무사, 현재 우리에게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지도자로 알려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59)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기도는 그의 문하생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요시다 쇼인은 서양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1854년 재래(再來)한 페리호에 숨어 출국을 시도했다. 그는 그 죄목으로 감금되었는데, 그 때 교도소에서 「유수록」(幽囚錄, 1854)을 집필했다. 그는 그 책에서 서세 동점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일본이 조선을 점령해 속국으로 만들고, 대만 등도 영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기도의 정한론은 그들이 메이지유신을 일으킨 목적, 즉 서구열강의 일본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대응책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상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그 직후, 정한론을 주장하던 기도와 이토 히로부미 등은 이와쿠라(岩倉)사절단의 일원들로 견외(遣外)하게 됐다. 그런데, 그들의 견외 와중에 메이지

12) 1837년 6월 미국선 모리슨호 우라가(浦賀)에 내항해 포격을 당함(모리슨호 사건). 1846년 5월 미국 동인도함대사령관 빅토르가 우라가(浦賀)에 내항 통상요구. 막부후 이를 거절. 1853년 6월 미국동인도함대사령관 페리, 우라가오키(浦賀沖)에 내항. 동년 7월 러시아극동사령관 프차친, 나가사키(長崎)에 내항. 1854년 1월 페리호 가나가와오키(神奈川沖)에 내항. 동년 3월 미일화친조약체결. 1858년 6~12월 안세이(安政) 5개국조약체결

혁명에 적극 참가한 사족(士族)들의 불만이 극심해 사쓰마번의 수장적인 사이고 다카모리가 조선정벌을 통해 그들의 불만을 해소해 간다는 입장을 취해서, 정한론 감행의 플랜을 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귀국한 이와쿠라 사절단의 반대로 결국 백지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메이지 6년(1873)의 정변」으로 비화됨에 따라, 결국 그것은 임진왜란과 같은 무력전쟁을 통한 정한 추진이 지양되고, 그 실행 형태가 변형되어 다음과 같은 3방향으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나갔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하나는 서구열강들이 아시아 각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적용했던, 무력이 동반된 외교술을 통한 추진이었다. 이것은 메이지유신을 일으킨 세력들 중, 서양어가 가능하고 서양물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주로 양학과가 주축이 되어 행해졌었다.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의 친청(親淸) 세력에 대해 갈 수 있는 친일세력의 양성을 통한 추진이었다. 이 경우의 추진세력은 한문에 강해서, 주로 한문학을 통해 신유일치(神儒一致)를 추구해온 미토학과(水戶學派) 출신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나머지 하나는 조선에서의 민족적·국민적·사회적 분란과 분열을 야기해 갈 수 있는 민간정치결사(政治結社)의 양성과 그 활동을 통한 추진이었다. 이 민간정치결사들은 우익세력으로 발전되어 나와 천황제사상 실천을 위한 재야 관변단체로의 역할을 이행해 갔다. 이 방면은 서양어와 한문에 무지한 서민층을 대변하는 자들로서 주로 국학과 출신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형성된 세력들이었다. 제1의 유형은 메이지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맡아 추진해 갔고, 제2의 유형과 제3의 유형은 정한론 주장에 패배해 정계로부터 물러난 재야세력들이 맡아서 추진해 갔다. 그런데 이들 재야세력들의 추진방법은 언론활동과 한국침입의 첩병활동을 통한 것이었다.

각 유형의 추진세력들은 자신들 차원의 한국정벌을 추진해감에 있어 서로 간 협조적·경쟁적 입장을 취해 나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그 전형적인 일례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고찰되는데, 그 사건에 동원된 행동 대원들은 규슈의 민간정치결사(政治結社) 「현양사」(玄洋社)로부터 파견된 우익세력들이었고, 그 세력 동원 역을 맡은 자는 경성의 「한성신보」 사장 아다치 겐조(安達謙藏, 1864~1948)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정한론과 요시다 쇼인의 「신국」 의식

조슈번의 무사였던 요시다 쇼인은 9세(1839)에 조슈번의 번교(藩校) 메이런칸(明倫館)의 병학 사범(兵學師範)에 취입한 자였다. 그는 1852(22세)년에 미토(水戶)번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1개월간 체류하면서 존왕양이론과 황국사관의 이론적 초석을 세운 후기 미토학과(水戶學)의 대표적 학자로서 『신론』(新論, 1825)을 저술한 아이자와 세이시사이(会沢正志齋, 1782~1863)를 6번 만난다. 일본의 문호개방 시기 병학사범으로서의 그가 느꼈던 민족

적·국가적 위기는 서구열강들의 동진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는 일본에게서의 최대의 위협적 존재가 서구열강들이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는 그의 『유수록』(1854)을 통해, 일본이 서구열강들의 동진에 대해가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에 인접해 있는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오토츠크와 사할린을 손에 넣고,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영유하고, 또 옛날처럼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만주를 분할해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가 서구열강의 동진에 대한 대항책으로 한국 등을 일본의 종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던 것인가? 그는 그가 숙부의 양자로 들어가서, 숙부의 병학사범을 계승한 자였다. 그의 숙부는 존왕사상(尊王思想)에 의거해 일본을 신국으로 의식하는 야마가류(山鹿流)의 병학사범이었다.¹³⁾ 따라서 쇼인에게는 어릴 때부터 야마가류의 병학을 이어받는 무사였던 부친과 숙부로부터, 일본이 「신주」(神州), 즉 신적 존재인 천황이 다스리는 「신국」이라는 의식이 전수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안세이 대옥」(安政の大獄, 1859)으로 수감되기 직전에 그의 친구 기타야마 안세이(北山安世)에게 보낸 서간 속에 있는 문구, 예컨대 「신국 일본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神州の大功ある人と云ふべし)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의 그러한 의식은 그가 미토학의 중심적 인물이었던, 아이자와 세이시사이와의 접촉을 통해서 더욱 더 확고해졌었다. 세이시사이는 일본을 「신국」(神州)으로 인식했던 자였고, 또 그러한 인식에 입각해 『신론』(新論, 1825)을 저술했던 자였다. 쇼인은 미토번에서 조슈번으로 돌아온 이후에, 세이시사이로 하여금 일본을 신국으로 인식케 한 일본의 『고사기』(古事記, 712)를 비롯한 일본의 「육국사」(六国史)를¹⁴⁾ 탐독해 갔다. 그런데 이 『신론』이 작자의 이름으로 정식 출간된 것은 「안세이 5개국조약」(1858)이 체결된 전년도였다. 이것은 미토번의 『대일본사』(1657~1906)를 편찬해 갔었던 수사국(修史局)인 「쇼코칸」(彰考館)의 총재였던 세이시사이가 당시의 번주(藩主)에게 바친 책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무명의 필사본 형태로 우국무사들 층에서 널리 읽혀왔었다.

18세기말부터 서구의 근대산업명세력들이 인도, 버마, 필리핀 그리고 중국에 도래했고, 19세기로 들어와서는 일본의 주변에 자주 출현했다¹⁵⁾ 따라서 당시 해방(海防)을 책임지고

13) 야마가류(山鹿流) 병학은 에도전기의 무쓰노쿠니(陸奥國:후쿠시마현)의 아이즈번(会津藩) 유학자이자 병학자로서, 하야시 라잔(林羅山)으로부터 주자학을 배운 야마가 소코(山鹿素行, 1622~1685)가 『성교요록』(聖教要録) 등과 같은 저술을 통해, 세운 병학이다. 이 병학은 단 순히 병법에 그치지 않고, 주자학뿐만 아니라 신도까지를 융합시켜 만들어낸 것으로서, 사리일체(事理一体)를 기반으로 해서, 도원(道源)·학문(學問)·역행(力行)의 3요소를 역설하고, 또 수신과 치국의 대도(大道)를 강조하는 병학이었다.

14) 고대에 일본(日本)이 울렁국가로 나오는 과정에서 편찬된 일련의 6종의 정사(正史)를 가리키는 말.

15) 1803년 3월 7일 미국선 나가사키(長崎)에 내항해 통상 요구. 1804년 9월 러시아사절 레자노흐 나가사키(長崎)에 내항해 무역 요구. 1808년 8월 영국선 패튼호 나가사키(長崎)에 난입해 딸감과 식수를 요구(패튼호 사건). 1811년 6월 러시아 함장 고로닌 오토츠크의 구나시리토(国後島)에서 체포. 1812년 8월 다카다야 가헤이(高田嘉兵衛) 러시아선에 체포됨. 1818년 영국인 골든 우라가(浦賀)에 내항 무역요구. 1823년 7월 독일인 시볼트 나가사키(長崎)에 내항. 1824년

있던 도자마번(外様藩) 무사들로서는 민족적·국가적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위기 극복의 방법론을 제시했던 책이었는데, 그 방법론이란 일본이 외세, 즉 서구의 오랑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일본 내의 모든 인간들의 관심을 하나로 집결시켜낼 수 있는 천황(天皇)을 존경해가야 한다는 사상, 한마디로 말해 존왕(尊王)을 통해 양이(攘夷)해 가야한다고 하는 존왕양이(尊王攘夷) 사상을 확립시키는 것이었다. 이 책은 그러한 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책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신론』은 당시의 요시다 쇼인과 같은 우국 무사들의 성전으로 읽혀져 갔었던 것으로서, 특히 메이지유신의 원동력이었던 「국체」(国体)사상의 기초를 제시한 책이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국체」란 만세일계(萬世一界)의 천황가를 주축으로 한 일본의 정치체제를 말한다. 그러면 세이시사이의 그러한 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어 되어 나온 것인가?

세이시사이가 총재직에 있었던 미토번의 수사국(修史局)인 「쇼코칸」은 1657년 미토번의 제2대 번주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1628~1701)가 세자 시절이었을 때에 에도에 설립한 역사연구소이다. 당시 바쿠후(幕府)에서는 수사사업으로 조선의 이퇴계 성리학계의 하야시 라잔(林羅山,1583~1657)에 맡겨져, 1644년에 『혼초쓰간』(本朝通鑑)이 편찬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의 태반이 「메이레키의 대화재」(明暦の大火,1657)로 소실되었다. 그래서 그것의 복구 작업이 하야시의 아들에 맡겨져, 소실부분이 보충되어 1670년에 완성되었는데, 미쓰쿠니는 그것이 소실된 바로 그 시점에서 「대일본사」 편찬 작업을 시작했다. 『혼초쓰간』은 중국 송대의 편년체 역사서 『자치통감』 『資治通鑑』(1084)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쓰쿠니의 그것은 사마천의 기전체 역사서로서, 중국의 중원(中原)의 화하족(華夏族) 중심의 중국역사서 『사기』(史記,BC 91)에 기초해 구상된 것이었다.

미쓰쿠니가 구상한 그 「대일본사」는 천황을 현재 인간으로 나타난 신, 즉 현인신(現人神)으로 파악해, 그 황가(皇家)를 주축으로 한 역사, 즉 황국사(皇國史)이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일본사를 연구해가는 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역사관은 이 책을 통해 확립된 황국사관이라 할 수 있다. 에도 바쿠후(江戶幕府)의 유학은 조선의 이퇴계의 성리학을 받아들여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립된 것이었다. 바쿠후에 치정이론을 제시해온 유학자 하야시 라잔이 저술한 『혼초쓰간』(本朝通鑑)은 일본민족의 원조를 주(周,성립 1046~256,BC)의 시조 무왕(武王)의 이복동생으로 노(魯)에 책봉된 주공(周公)으로 설정해 기술했다. 그러나 『대일본사』는 그것을 『기기』(記紀)에 나오는 지신(地神)의 최고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太陽神)로 설정했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사상사에서의 「국학」(国学)의 창시자는 게이추(契沖,1640~1701)¹⁶⁾로 알려져 있다. 그가 그러한 사상을 창시해 내게 된 동기는 미쓰쿠니로부

터 위탁을 받아 『만요슈』의 주석(注釋) 작업을 행해가는 과정에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작업의 결과물이 바로 『만요다이쇼키』(万葉代匠記,1690年: 『万葉集』注釋書)였다.

필자가 여기에서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것이다. 바쿠후의 치정이론으로 활용되었던 하야시 라잔 계열의 유학은 조선·중국 중심의 치정이론이었는데 반해, 미토번의 수사국 「쇼코칸」에서 행했던 「대일본사」의 편찬과정에서 성립된 미토학과 『만요슈』의 주석 작업 과정에서 성립된 국학의 경우는 조선·중국에는 반하는 일본중심의 치정이론을 세워내는 학문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미토학(水戶學)과 국학(國學)은 메이지유신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부상한 정한론의 기초가 됐던 학문이었던 것이다.

2. 일본인의 신국의식과 그 형성경위

1) 여몽(麗蒙)의 일본원정과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

그렇다면 『대일본사』는 과연 이러한 황국사관과 국학사상을 어디로부터 취한 것인가? 이 역사서 성립에 초석 역할을 했던 서적은 가마쿠라(鎌倉) 말·무로마치(室町) 초, 조정(朝廷)의 공경(公卿) 기타바타케 지카후사(北畠親房,1293~1354)가 저술한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1339, 수정1343)이었던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쓰인 것인가? 이 책이 쓰이게 된 동기는 두 가지로 파악된다. 우선 하나는 당시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88대의 고사가천황(後嵯峨天皇,재위 1242~1246)이 사망하자, 황위와 황실령의 장원 상속 문제를 놓고 양진영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결과 결국 조정(朝廷)내에서 정치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자 바쿠후(幕府)가 나서서 한 번씩 번갈아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문제가 일단 해결되었다. 황위에 오른 고다이교 천황(後醍醐天皇,재위 1318~1339)은 친정(親政)을 목표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 토막(討幕)을 시도했다.

그러자 바쿠후는 고다이교천황으로 하여금 황위를 양위케 하고, 또 그의 즉위를 반대해 왔던 쪽의 고곤천황(光嚴天皇, 재위 1331~33)의 즉위를 이행케 했다. 그리고 바쿠후는 고다이교천황을 시마네(島根) 번 옆의 이키(隱岐)섬으로 유배시켰다. 그러자 고다이교천황 측은 토막 세력을 형성해 봉기했고, 고다이교천황도 유배지에서 탈출해 나옴에 따라 바쿠후 세력에 대항해 갈수 있는 세력이 결집되었다. 그러자 바쿠후는 반란진압을 위해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高氏,1305~58, 후에 尊氏로 바뀜)를 대장으로 해서 현지에 그를 파견했다. 그런데 그는 반역해 고다이교천황의 편으로 들어가서, 가마쿠라(鎌倉)에 있는 바쿠후를 공격해 결국 1333년에 그 정부를 무너뜨렸다. 그러자 고다이교는 교토로 돌아가 고곤천황을 퇴위시키고, 제차 스스로 황위에 올라 철저한 친정정치를 재게했다. 그러자 가마쿠라 바쿠

전수되어, 불심에 오염되지 않은 일본고대인의 마음을 연구해가는 「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성립되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5월 영국 선원, 히타치노쿠니(常陸国)에 상륙.
16) 게이추는 지인 가인(歌人) 시모코베 조류(下河辺 長流, 사망 1686)가 미쓰쿠니로부터 위탁받아 해가던 『만요슈』(万葉集)의 주석(注釈) 작업을 건강악화로 더 이상 이행해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것을 인계 받아 행해가게 됐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만요다이쇼키』(万葉代匠記, 『万葉集』注釋書,1690年)이었다. 그는 『만요슈』의 노래 내용을 해석해냄에 있어 고대인의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노래들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의 그러한 입장이 국학자들에게

후를 무너뜨린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바쿠후 중심의 정치를 재건시키려 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의지는 고다이고천황의 친정정치 추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다카우지는 결국 고다이고천황과 대립해서, 그를 천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곤천황 즉의 고묘천황(光明天皇, 재위 1336~48)을 즉위시켰다. 그러자 고다이고천황은 그 해 남방의 나라(奈良) 지역 요시노(吉野)로 피신해 그 산중에서 요시노 조정을 세워 천황 직을 유지해 나갔다. 그 결과 1358년에 교토의 고묘천황으로부터 그의 손자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 1358~1408)에게 세이이쇼군(征夷將軍)직이 내려져, 결국 교토의 무로마치(室町)의 거리에 아시카가 바쿠후(足利幕府, 1358~1573)가 세워진다.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 1339, 수정 1343)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저술된 것이다. 저자 기타바타케 지카후사(北畠親房, 1293~1354)는 친정체제를 추진해가던 고다이고천황 즉의 공경(公卿)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고다이고천황 즉에 섰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또 고다이고천황은 어째서 그 시점에서 천황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했었던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일본은 신국이다」로 시작되는 『신황정통기』의 「서론」(序論)에 잘 나타나 있다.

어째서 그는 일본을 「신국」이라 인식했던 것인가? 그가 친정체제를 세우려는 고다이고천황 편에 가담해서 정치를 행해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우선 이 문제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다. 여몽(麗蒙)연합군이 일본원정(日本遠征)을 떠난 것은 1274년과 그로부터 7년 후인 1281년, 2차례에 걸쳐서이었다. 당시 몽골은 13세기 초부터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동유럽까지, 남으로는 이란과 인도까지, 동으로는 고려와 남송까지를 복속시킨 후에 북속국의 군대를 동원해 일본원정을 감행했던 것이다. 몽골은 40여년 이상 9차에 걸친 고려 침략을 통해 결국 1270년에 고려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었다.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은 그 다음 1271년에 몽골고원의 카라코람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대원(大元)이라 했다. 그는 자신들의 속국이 된 고려로부터 군대를 착취해 자국의 군대와 연합군을 편성해서, 1274년 9백 척의 함선에 총 4만의 군사를 이끌고 일본원정을 떠났다. 쓰시마와 이키를 점령하고 규슈의 하카타 지역 등에 도착했다. 원정군의 일부가 상륙해 선진했으나, 결국 태풍으로 인해 함선들이 파산되어 일본점령에 실패했다. 2차 원정 때에는 남송을 점령하고 취한 남송 군대도 동원됐는데, 그 때의 원정군이 4500여척의 전선에 15만 대군이였다. 그러나 이 때도 태풍으로 인해 전선들의 대다수가 파괴되고 3만여 명 밖에는 살아남지 못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여몽원정군과의 전투를 계기로 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된다. 하나는 신펙(神風)이 일본을 구제해 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또 다시 몽골이 내습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었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태풍의 덕택에 의한 두 차례에 걸친 몽고내습이 물고 온 국가적 위기의 모면을 계기로 해서, 자국 일본이야말로 「신국」이라는 의식에 한층 더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몽골이 또 언제인가는 반드시 내

습해 올 것이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의 불안감에 한 층 더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상과 같은 역사적 상황에 입각해 저자가 책의 「서론」(序論)을 통해서 「일본은 신국이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파악해볼 것 같으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이 「서론」(序論)을 통해서 「일본은 신국이다」라고 한 말의 논거를 이렇게 제시했다. 「아마쓰 미오야(天祖)¹⁷⁾가 나라의 근본을 세우고, 태양신(日神)이 오랫동안 자신의 계통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일본)에만 있는 일이다. 다른 나라에는 이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일본)를 신국이라고 하는 것이다」³⁾ 이렇게 저자의 일본신국론은 한마디로 「일본은 신손(神孫)이 군림하는 나라」라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상기의 책을 저술한 이유에는 분명 당시 일본인들의 국가적 위기의식의 극복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당시 『신황정통기』가 저술된 것은 우선 일차적으로 몽골이 반드시 또 내습해 올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력을 총집결시켜 낼 수 있는 친정체제를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작자가 설파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책의 기술대로,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만세일계(萬世一界)의 정치적 형태를 취해 온 「신국」(神國)이기 때문에 몽골이 또 다시 내습해온다 하더라도 이전의 경우처럼 분명 신의 가호가 있을 것이니까 일본국은 결코 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당시의 일본인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황정통기』의 저자는 무엇에 근거해서 일본이 「신손(神孫)이 군림하는 나라」라는 그러한 논리를 제시했던 것인가?

2) 「기기」(記紀, 712와 720) 속의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삼한정벌」과 일본인들에게서의 「신국의식」의 의미

『신황정통기』는 그때로부터 이미 6세기 전에 쓰인 『기기』의 기술체제를 취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기』가 신들을 천신·지신·인신(천황)으로 삼분화해서 기술하고 있듯이, 『신황정통기』도 그런 식으로 삼분화해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는 『신황정통기』가 다음 아닌 바로 『기기』를 모델로 해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일본을 신국(神國, '가미노쿠니'라 읽음)이라 칭한 최초의 문헌은 역시 『기기』이다. 『신황정통기』의 번역자 남기학 교수도 그 역사의 주석 작업 과정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 「신국」이라는 말이 『일본서기』의 「권9,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섭정전기(攝政前紀)인 주아이(仲哀)천황 9년 10월 조항」에 나와 있다.⁵⁾

내 듣기에 동쪽에 일본이라고 하는 신국이 있다고 하더라. 또 성왕이 있는데, 천황이라

17) 가무요나나요(神代七代)의 마지막 대의 신들, 남신 이자나기노 미코토(伊邪那岐命)와 여신 이자나미노 미코토(伊邪那美命)

하더라. 그러나 필시 그 나라에는 신병이 있을 것이다.[吾聞東有神國. 謂日本. 亦有聖王. 謂天皇. 必其國之神兵也.]

상기의 인용문은 진구황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신라 앞바다에 출현하자, 그 광경을 본 신라왕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 놓고 그들에게 행한 말이다. 우리는 이 인용문 안의 「신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우선 하나는 남기학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신국」이라는 말이 일본의 진구황후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신라왕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신라왕이 「(소문으로) 듣기에」라는 말을 전제로 행한 말이기만 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라왕이 이 「신국」이라는 말을 하게 된 구체적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서기』의 「권9」에 기술된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섭정전기(攝政前紀)인 주아이(仲哀)천황 9년 10월 조항」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진구황후가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로 쳐들어갔다. 그러자 신라왕이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내가 말로만 들어오던 동쪽에 있다고 하는 신국의 신병들이 오늘 저렇게 쳐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런 연후에 그는 싸움도 한 번 해보지 않고 진구황후 앞에 나가 엎드려 항복한 연후에서, 매년 춘추에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하고서 그는 당장 80척의 재물을 가져와 진구황후에 바치자, 고구려와 백제도 그 말을 듣고 찾아와 항복한 다음, 자기들도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진구황후는 재물과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신라로부터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진구황후의 신라정벌」, 혹은 「삼한정벌」(三韓: 신라·고구려·백제)의 이야기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의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물론 이것은 완전한 허구이다. 그렇지만 태반의 일본인들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왔다.¹⁸⁾ 『일본서기』(720)의 편찬자들은 말할 것 없고, 『신황정통기』(1339, 수정1343)의 「서문」에 「진구황후가 신라·백제·고구려를 복속시킨 것은 후한시대에 해당한다.」¹⁹⁾ 하고 하는 문장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의 저자도 이 「삼한정벌」을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또 요시다 쇼인도 『유수록』(幽囚錄)에서 일본이 「옛날의 성시 때처럼」(古の盛時の如く) 「조선을 지배해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일(朝鮮を責めて質を納れ貢を奉るこ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구를 근거해서 쇼인도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을 역사적 사실로 파악하고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이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을 어느 때 일어난 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앞의 『일본서기』의 편찬책임자 도네리 신노(舍人親王), 『신황정통기』의 저

자 기타바타케 지카후사(北島親房)와 같은 자들은 후한(25~220)의 말기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일본 역사가들은 진구황후시대를 4세기 중후반경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우리는 『기기』에 기술된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의 역사적 가능성 타진의 일환으로, 4세기 중후반 전후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일어났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는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제2」에, 193년 란에 「6월에 왜인들이 크게 굶주려서 우리에게 와 먹을 것을 구하는 이가 1천여 명이나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⁷⁾ 또 233년 란에는 「여름 4월에 왜인이 갑자기 들이닥쳐 금성을 포위함에, 왕이 몸소 나가 싸웠다. 적들이 패배해 달아나니 날랜 기병을 보내 쫓아가 처서 1천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⁸⁾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광개토왕릉비문(414년)에는 「백제와 신라는 원래부터 속민이었는데, 아직 조공하지 않고, 왜는 신묘년(391)부터 건너오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왕은 백제와 왜를 공파하고 신라는 복속시켜 신민으로 삼았다.」¹⁹⁾로 기록되어 있다.⁹⁾

4세기 중후반을 전후해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록은 이 정도 밖에는 찾아지지 않는다. 우선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제2」에 기록된 사건, 즉 223년에 일어났던 사건은 2세기말 경부터 있었던 왜구의 침입들 중의 하나로 고찰되는데, 신라가 그 사건에서 패했거나 혹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 조공을 바치게 됐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 다음은 광개토왕릉비에 새겨진 것으로서, 391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것이다. 1882년 중국인에 의해 탁본된 것이 일본인을 통해 육군참모본부의 요코이 다다나오(横井忠直)에 전달되었는데,¹⁰⁾ 그는 그것을 자료로 해서 광개토왕릉비를 연구해 1884년에 한 논문을 발표했다.²⁰⁾ 그는 그 비문에 들어 있는 「왜는 신묘년(391)부터 건너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은 백제와 왜를 공파하고 신라는 복속시켜 신민으로 삼았다.」(倭以辛卯年來 渡海 破百殘新羅 以爲臣民)고 하는 문구를 「왜가 신묘년(391)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로 번역하여,²¹⁾ 그 신묘년(391)에 있었던 일을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에 적용시켜 파악했다.¹¹⁾

이상과 같이 검토해봤을 때, 어쨌든 우리는 19세기말 요코이 다다나오의 경우처럼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을 광개토왕릉비문에 적힌 신묘년(391)의 사건에 적용시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사건에 적용시켜 봤을 때에도 『일본서기』의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은 완전한 허구로밖에는 파악되지 않는다. 일본이 고구려에 격파되어 돌아간 것이 어떻게 신라가 정벌되고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와 함께 일본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는 식으로 기록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고구려정벌」이 아니고 왜 「신라정벌」인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제기된다.

18) 『고사기(중)』(권오엽·권정영·고즈원, 2007), P.322 [4세기말에서 5세기초에 아마토 정권이 조선 반도에 진출하여 신라를 제압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입장이 있고, 또 진구황후의 신라정토 이야기가 그 역사적 사실은 설화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강담」부분 참고)

19) 원문: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 破百殘新羅 以爲臣民.

20) 横井忠直, 「高句麗古碑考」(東京都立日比谷圖書館藏, 1884)

21) 「문부성 검정제 교과서」(文部省檢定教科書)들 중의 하나인, 「井上光貞 他 『日本史』(山川出版社, 1992) p.24」도 그러한 번역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분야의 전공자 이재석은 광개토왕비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4~6세기 당시에도 왜와 한반도와의 사이에 외교적 군사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그것으로 인해 당시에도 일본에 대외적 위기의식이 조성되어 있었다,¹²⁾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가 여기에서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부의 학자들을 제외한 현재 대부분의 일본고대사 연구자들의 경우도 『기기』에 기술된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을 역사적 사실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도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그 자체에 대해서는 허구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짚어 본다. 그것이 허구라는 그 일차적 논거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우선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직접 짚어봤듯이, 『기기』의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이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에서 기술되지 않고, 그것 자체가 신화·전설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기술자 자신도 그것이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라는 입장 하에서 그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기술자는 진구황후가 신탁을 받고 신라로 쳐들어갈 때 바다 속의 물고기들도 그들의 「부력」(浮力)을 이용해 신라정벌을 떠나는 그의 전선(戰船)의 전진을 도왔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신라왕이 신라 앞바다에 출현한 진구황후의 전선들을 보고서, 그가 그동안 동쪽에 있다고 말로만 들어오던 「신국」(神國)의 「신병」(神兵)들이 그 전선들에 타고 있을 것들이라 추측한 나머지, 그 전선들의 총 지휘자 진구황후 앞으로 나가서 덤석 엎드려 항복을 선언했다. 이러한 이야기 그 자체가 완전 지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이야기의 기술자는 사실을 전달하려는 역사가의 시각을 취한 자가 아니고, 소설가가 취하는 완전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의 시각을 취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도 하에서 조작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그 허구세계 속에서 진구황후의 나라를 「신국」이라 말하고 그의 병사들을 「신병」들이라 말하는 자는 다른 아닌 바로 신라왕이다.²²⁾

그런데 그 말은 신라왕이 신라 앞바다에 출현한 전선들을 바라다보면서 신라인들에게 한 말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신라의 병사들 앞에서 했던 신라왕의 그 말이 바다 저 먼 곳에 있는 진구황후나 혹은 그의 병사들과 같은 일본 측의 인간들에게 결코 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신라왕이 신라 병사들에게 했던 그 말이 『일본서기』의 「진구황후 섭정전기(摂政前紀)인 주아이(仲哀)천황 9년 10월 조황」에 마치 진구

22) 본고의 구두발표 과정에서 「신국」(神國)이라는 말이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필자도 그러한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근거로는 일본의 『일본서기』(日本書紀, 720)가 한반도에서 망명한 자들 내지 그의 후손들에 의해 기술되었거나, 혹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구체적 근거자료의 제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현존 최고(最古)의 문헌은 『일본서기』보다 8년 빠른 『고사기』(古事記)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그것보다 433년이 더 늦은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이기 때문이다.

황후까지 들렀던 말로 서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필자로서는 이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것인가?

『일본서기』가 편찬된 것은 720년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목적 하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제기」(帝紀)와 호족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구사」(旧辞)등과 같은 여러 자료들에 근거해서 서술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이야기의 창작 시점에 관한 문제가 고찰될 수 있다. 우선 하나는 이 『일본서기』의 편찬시점인 720년 직전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자료에 의거해 기술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료의 성립 시점을 그것의 창작시점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할 어떤 과학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취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인들이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등과 같은 허구적 이야기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역사적 체험을 언제 했는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앞에서 우리가 인용한 문장, 즉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의 이야기가 기술된 문장, 즉 「내 듣기에 동쪽에 일본이라고 하는 신국이 있다고 하더라. 또 성왕이 있는데, 천황이라 하더라」(吾聞東有神國。謂日本。亦有聖王。謂天皇。) 속에 「일본」(日本)과 「천황」(天皇)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왜국'(倭國)으로 칭해져온 나라가 「일본」(日本)이라 칭해지고, 또 그 왜국(倭國)의 왕의 명칭, 즉 오키미(大王)가 「천황」(天皇)이라 칭해지기 시작된 시점 이후에 지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일본에서 국가의 명칭이 「일본」(日本)이라 불리고, 또 왕이 「천황」(天皇)이라 불리기 시작된 것은 「진신의 난」(壬申の亂, 672)을 치룬 덴무텐노(天武天皇, 재위 673~686) 시대였던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¹³⁾ 따라서 이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이야기는 그 시대 이후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대외적으로 어떤 시대였는가? 백제가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 패해 660년에 멸망하자, 일본의 덴치텐노(天智天皇, 中大兄皇子, 628~672, 재위 668~671)가 일본군을 파견해, 백제부흥을 꾀하고 있던 백제유민들과 연합해서 663년 8·9월 사이에 금강(錦江: 백천강)에서 나당연합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결과는 그 전투가 그 당시 그 백촌강 전투에 파견된 1천여척의 일본의 수군 중 400여척이 불에 타 소실되는 등 완전한 참패로 끝났다.

그 후 한반도에서 백제를 패망시킨 나당연합군이 668년에 가서는 고구려를 무너뜨렸다. 그 다음 한반도에서는 당과 신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신라가 당나라세력을 몰아내고 676년에 한반도통일을 실현시켰다. 그러자 백제부흥을 꾀하다가 나당연합군에 참패하고

돌아간 일본은 나당연합군이나 혹은 당 또는 신라가 일본에 침공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일본열도의 요지에 방위시설을 건설해가면서 수도를 나니와(難波:오사카)에서 오미(近江:비와호)로 옮기고, 당의 국가제도를 받아드려 「오미령」(近江令,668)을 시발로 해서 율령 제도를 실시해, 「왜국」(倭国)을 「일본」(日本)으로 전환시켜 나갔었던 것이다.¹⁴⁾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취하고 있는 황국사관의 초석을 제시해 온 『기기』(記紀,712과 720)가 편찬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당시의 일본의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이라는 허구가 창작된 것은 나당연합군으로부터의 참패를 경험한 일본이 대륙으로부터의 침공 가능성으로부터의 국가적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그러한 위기의식을 모면해보기 위한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입장이 취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의 이야기에서의 「신국」이라는 말이 신라왕의 입을 통해 행해졌다고 하는 것은 신라의 왕까지도 「천황」이 통치해 가는 일본을 「신국」으로 보고, 일본을 두려워해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가기 위해 조작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는 일본인들이 자기나라를 「신국」으로 인식하는 심리에는 인접의 강대국으로부터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국가적 위기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이 파악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인들의 「신국」의식을 파악해볼 때, 그들의 그러한 위기의식의 이면에는 일본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 어떤 외적에 대한 의식과 그 외적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거하려는 어떤 강한 의지가 숨겨졌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3. 일본인의 「신국」 의식이 근현대 한국인에게 끼친 영향

1) 한국 근대화의 추진세력들과 그 추진력

근대한국사회와 근대한국인들의 사고는 근대일본사회와 일본인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나왔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문호개방과 메이지유신을 통해 이루어진 일본의 근대화는 일본에서 「신국」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었다. 그 인사들이란 다름 아닌 바로 근대 서구열강들의 동진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신국」사상과 그것을 중핵으로 한 국체사상과 황국사관을 신봉했던 미토학과·국학과·양학과 출신의 인사들이었다. 그들이 바쿠후체제를 무너뜨리고 확립시킨 정치체제는 근대천황제 국민주의였다. 근대천황제를 지탱시켜나갔던 삼대 기둥이라고 칭해지는 세력들은 천황의 직속기관들이 배출해낸 자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국대학 출신의 관료들, 사관학교 출신의 직업군인들, 그리고 사범대학 출신의 교육자들이었다. 일제의 한국침략세력들은 이들 출신기관들을 통해서 양성된 자들이었다. 제야에서 활동해가는 제야 관련단체들의 경우도 이들을 발판으로 해서 형성된 단체들이었다.

한국의 문호개방과 근대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제의 식민지화는 다름 아닌 바로 이들을 통해 행해졌다. 일제 강점기 한국의 총독부, 경성제대, 각 지역의 사범학교의 운영자들은 바로 이들이었다. 한반도에서의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적극 동조해갔던 친일파들도 이들을 통해 양성된 자들이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친일파들이란 단순히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에 동조했던 자들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우선 일차적으로 천황의 직속기관의 출신들로부터 정신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그 기관들의 출신자들이 신봉하는 국체사상과 황국사관 등과 같은 사상체계에 무의식적으로 빠져들어 그러한 사상에 물든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한반도내의 일본인들, 즉 그 천황의 직속기관 출신자들은 한국인들에 대해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강력한 동화정책을 획책해갔다. 그 경우 한반도내의 일본인들은 당연 지배자의 입장 즉 갑(甲)의 입장이고 한국인들은 피지배자의 입장 즉 을(乙)의 입장에 있었다. 피지배의 위치에 있던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로부터 사상적 측면에서부터 육체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갑 질들을 당해갔다. 그 과정에서 적잖은 한국인들은 일제의 황국사상에 매몰되어, 결국 그 사상까지도 동조하는 친일파로 전락했던 것이다.

2)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에게 주입된 일본인들의 「신국」(神國)의식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천황제를 떠받쳐 갔었던 근대일본인들에게서의 「신국」(神國)의식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 하에서 형성되어 나왔다. 한마디로 말해 근대일본인들이 일본을 「신국」(神國)이라 인식했던 것은 초종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기』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습득해 그것을 그대로 믿어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것들에 기술된 내용이란 첫째는 우선 일본의 국토²³⁾가 다카마노 하라(高天原)에 존재하는 여러 천신들의 명령으로 마지막 칠대 궤의 남녀(음양) 두 천신들(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신)이 창조해낸 것이라는 의미에서 일본이 「신국」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그 국토에 존재하는 모든 무생물들과 생물들을 관리하고 지배해가는 자들이 신(神)들, 구체적으로 말해 태양신을 주축으로 한 지신들(地神, 地祇)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국토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다스려가는 존재, 구체적으로 말해 인황(人皇), 즉 천황(天皇)이 천손신(天孫神)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의 국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관리해 가는 천황이 신이라는 논거는 그가 천신의 후손인 지신, 즉 태양신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일제가 「제국헌법의 공포」(1889,M22)를 통해 메이지천황을 신적 존재로 규정하고, 또 「교육칙어의 발표」(1890,M23)를 통해 일본이 현인신(現人神)인 천황이 다스려가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교육시

23) あしはらのなかつくに(葦原中国)

켜감으로써 결국 근대일본인들이 일본을 「신국」(神國)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²⁴⁾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행했던 식민지정책의 하나로서의 동화정책이란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제를 「신국」(神國)으로 인식시켜가는 것이었고, 또 한국인들을 천황의 신민(臣民)들, 즉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 인식시켜 나갔던 것이었다. 그 결과 식민지상태에 처해 있던 근대한국인들이 일제의 그러한 신민교육에 대해 취했던 태도는 두 가지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왔다. 하나는 속으로는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겉으로는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형태이다. 일제의 그러한 동화정책은 중일전쟁의 발발(1937.7)을 기점으로 해서부터는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한국인들을 현인신 천황이 다스리는 「신국」(神國)의 완벽한 신화로 전환시켜 그들을 중일전쟁에 투입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다음, 그곳에서 취한 인력과 물자를 가지고 동남아시아를 점령한 다음, 또 그곳에서 취한 것들을 가지고 서구열강의 맹주 미국을 타도해 간다고 하는 구상이 일제의 황국주의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다. 황국주의자들이 그러한 구상을 했던 것은 그들의 내면에 자국 일본이 「신국」(神國)이라는 의식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인들에게서의 자국 일본이 「신국」이라고 하는 의식은 외세의 위협이 불러일으킨 국가적 위기의식의 승화된 형태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취해본다고 한다면,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의 외세란 사실은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킨 미국을 맹주로 한 근대서구 열강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근대일본인들이 국가적 위기의식을 모면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선 일차적으로는 아시아대륙의 육로를 통해 일본을 위협하는 러시아(소련)세력의 타도였고, 이차적으로는 태평양의 해로를 통해 접근한 영미 세력의 타도였다. 그런데 일제에게서의 이러한 서구세력들의 구체적 타도방법은 우선 일차적으로 일제의 인접지역 국가들, 예컨대 사할린, 오키나와, 한반도, 대만, 그리고 만몽 지역 등을 점령해서 일제의 국권을 확장시키는 것이었다.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의 전락된 것은 일본인들에게서의 그러한 「신국」(神國)의식의 발로에 의한 것이었다고도 말해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결국 한국인이 일제의 황국 국민의 행세를 해갔던 것은 일본인의 의식 속에 내재된 「신국」(神國) 의식이 도출해낸 산물이었다고 말해볼 수 있는 것이다.

3) 현대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의 형성기반

한국은 일제의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전을 계기로 해서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러나 전승국 미소는 일제의 식민지국이었던 한반도를 양분화 해서, 그것을 그들의 수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극동지역의 전략기지로 활용해 갔다. 전후 소련을 주축으로 한 공산세력에 대해 가아했었던 미국은 패전국 일본과 일본의 식민지국이었던 남한을 하나로 묶어 미국의 대방공기지(對防共基地)로 활용해 왔다. 이 경우 미국으로서는 과거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남한이나, 혹은 한 때는 자신들의 아시아대륙 침략의 동반자였다가 적대국이 되었다가 자신들과의 식민지쟁탈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결코 달리 인식될 수 없었다. 미국으로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대륙의 반공세력의 남하를 저지해감에 있어 동일한 우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남한에서의 과거 친일세력의 친일전력은 문제시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전전 일제의 전쟁수행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일세력을 전후의 한국경영의 중추로 적극 활용해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 취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후 미국이 공산진영과의 대립각을 세워 자본진영 국가들의 맹주역할을 자임해가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미국의 비호 하에서 남한에서 활동해갔던 과거의 친일세력들은 일본인들이 물려간 공간 속에서 식민지시대의 일본인들 행세를 자행해가게 되었다. 냉전체제 하에서의 일제강점기의 친일세력들은 전후 현대한국사회에서 일본과 미국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적극 활용해 감으로써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유해갔다.

현재 그들의 윤리의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우선 하나는 우선 일차적으로 상대방들을 적대적 관계로 본다고 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지배적 위치에 서 있는 일본인들과 피지배적 위치에 서 있는 한국인들의 관계가 그러했었던 것처럼 말이다. 상대방을 적대적 관계로 보는 한, 그들은 상대방이 안 되기를 바라고 상대방의 흠을 잡아 내 악평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들을 주종내지 감을관계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를 자기보다 약자로 대해 간다든가, 아니면 자기보다 강자로 대해 간다고 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은 한국인을 약자로 대하였고, 한국인은 일본인을 강자로 대했듯이 말이다. 나머지 하나는 상대방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자기보다 약자라 생각했을 때 그를 무시해 버리거나 혹은 상대방에 대해 갑 질적 행태를 자행해간다고 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피지배자의 위치에 섰던 한국인들에게 행해갔던 바로 그러한 식으로, 친일적 사고에 빠져있는 자들은 약자들에 대해 갑 질을 난발해가고, 또 그들을 무시해 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제강점기 황국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인들로부터 유린당했던 기억들을 거울삼아 정치적 권력과 경제력이 없는 자들에게 갑 질적 행태를 취해간다는 것이다. 친일한 자들에게서의 인간관계의 모델은 그들이 일제강점기에 접했던 일본인들과 한국인들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일본인들이 당시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던 한국인들에게 행해갔던 것처럼, 지배자 일본인의 위치에 서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해 간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각해 볼 때, 현대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은

24)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론가 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 1940년생)는 그의 저서 『천황과 동대』(天皇と 東大, 文藝春秋, 2005.)에서 이렇게 회술 하고 있다. 「내 자신은 1940년 생으로 전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전전의 교육은 무엇 하나 알지 못하는데, 나보다 조금 뒷사람까지는 천황제 하의 신학교육, 신국교육을 몸으로 받아왔다.」(p.212)

일제강점기 지배적 위치에 있던 일본인들과 피지배적 위치에 있던 한국인들 간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이후 우선 일차적으로 한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해 왔던 관념은 반공과 자본주의였다. 일제에 의해 유린되어 단절 위기에 처해 있던 민족주의는 그 뒤편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미국이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해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지켜가고 또 그것들을 확장시켜 가기 위한 한 방안으로 우선 일차적으로 그것들을 일본과 한국의 국민들에게 이식시켜 가는데 급급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그러한 미국의 관리 하에 있었던 남한정부는 일제강점기의 민족반역자들의 정치적 활동무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남한의 한국인들에게서의 민족주의는 현재 전 세계가 추구해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확립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근대사의 전개과정을 고찰해볼 때, 서구열강의 경우처럼 근대국가의 성립과정에서의 그것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구열강의 동진과정에서 식민지로 전락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근대국가로 전환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과정에서 그것의 초석이 되었었던 민족주의가 확립되어 있을 때만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고 또 꽃필 수 있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다수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온 것이다.

해방이후 남한에서 미군이 주둔해온 제일차적 목적은 소련을 주축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동북아시아에서 태평양 쪽으로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동안 남한에서의 그러한 미군주둔은 공산세력의 그러한 야욕 실현의 최첨단에 위치해 있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해 가는 것으로 그 일차적 목적이 부여되어 왔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차적 목적을 포함해 이차적으로는 일본이 포함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에 덧붙여, 미국의 상원의원들 쪽에서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국의 실질적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입장을 자주 피력해왔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만일 남한에서의 미군주둔이 한국의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하는 입장이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다면 어떻게 하게 하겠는가? 미국이 과연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킬 수 있겠는가? 아마도 미국은 그것을 결코 철수시키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군의 남한주둔이 미국의 국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의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일차적 관건은 정전협정상태의 종언을 의미하는 종전선언을 통한 남북한 간의 적대적 관계의 청산과 비핵화를 통한 평화협정의 체결이라 말할 수 있다. 사실상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기초한 서로의 신뢰를 담보로 해서 서로간의 적대적 관계만 청산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미군의 한국주둔의 일차적 임무가 북한의 남침저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만 해결된다면 미군의 남한 주둔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

고, 남한에 미군주둔이 없으면,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남한에 미군 주둔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근거는 북미와의 비핵화 협상이 행해지는 이 시점에서 버웰 벨 전 주한 미군사령관이 한 말, 즉 “주한미군 철수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건 한국 사형(死刑)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말이 그 일례일 수 있을 것이다.²⁵⁾ 남북미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미군철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일차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토록 하기 위한 일차적 수순인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평화협정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어떻게 핵을 폐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자기생존을 위해 총을 지니고 있는 자에게, 총을 들이대고서 “무조건 총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아니겠는가? 버웰 벨의 그러한 말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는 당연하다”는 말이 전제가 됐을 때만이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V. 결론

일본은 근대서구열강의 동진을 계기로 메이지유신을 단행했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침략과 대륙침략을 자행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패망이었고, 사실상 아직까지도 일본은 그 패망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한국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근대서구열강들의 동아시아침입에 대해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일본의 한국침략의 결과는 아직까지도 분단 상태와 미군의 남한 주둔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제는 서구세력들의 동진에 대처해 가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한국이 서구열강의 손아귀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한국을 손아귀에 넣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륙공략에 나섰던 것이다. 사실상 일본인들의 그러한 아이디어는 근대 이전부터 일본인의 뇌리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신국」의식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해볼 수 있다. 일본인들이 자기나라를 신국으로 의식하게 된 것은 외세의 일본 침략 가능성이 불러일으킨 민족적·국가적 위기의식을 모면해 가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근대일본인들에게서의 그러한 의식은 전근대 일본인들로부터 취해낸 것이고, 그들에게서의 그러한 의식은 일본민족이 대륙세력들의 일본침략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형성시켜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서의 그러한 의식은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이 취해가는 현실타개책의 일환으로서 취해가는 의식이다. 인간들에게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을 수 없는 것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믿어봄으로써 어떤 기적을 통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25) 「조선일보」(2018.5.29. 화), A6면

가까스로 모면해보려는 수법이 존재한다. 박근혜 탄핵 때에 친박세력들이나 태극기부대가 취했던 흑색선전을 통한 현실타개책의 원형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이 수법이야말로 자기기만의 일종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수법이 결국에 가서는 일본을 패망으로 몰아넣고, 한국을 식민지국으로 전락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어왔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 만주, 중국, 동남아, 그리고 태평양을 차례로 공격해 점령해갈 수 있었던 전력은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내재된 「신국」 의식이었고, 그 의식에 내재된 적, 즉 자기를 불안케 하는 존재, 바로 그것에 대한 공격적 의지였다. 일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정책의 일종인 민족동화정책을 취해 한국인을 황국신민으로 교육시켜 나갔다. 그 결과 친일파들을 비롯한 적잖은 한국인들이 일본이 「신국」이라는 허위의식에 빠져들게 됐었던 것이다. 해방 후 한반도에서 일본인이 물러가자, 그러한 허위의식에 빠져 있던 친일파들은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군사·정치·경제적 차원에서 한국을 지배해가던 미국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자신들이 일본인들로부터 받아온 수모들에 대한 기억들을 거울삼아 자기들의 수하에 있는 약자들을 유린해왔었던 것이다.

우리는 허위의식과 자기기만에 빠져 무의식적으로 행해가는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갑질」이라 말하고, 또 그들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 행해가는 행위를 「미 투」 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신국」 의식에 빠져 있는 친일파들과 황국신민 교육을 받은 자들의 대다수는 우선 일차적으로 상대방들을 경쟁자 혹은 공격적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불안케 하는 자들이 패배할 때까지 갖은 수단들을 다 동원해 공격해간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한국인들의 대다수가 지닌 윤리의식의 실상이고, 현주소이다.

인간들에게서의 윤리의식은 그것이 물리적·생물학적 세계에 기초해 있을 때만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시대적 관념이나 혹은 정치적 사상 또는 특정의식에 기초해 형성된 것들은 그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허위로, 가식으로, 사기로, 자기혐오 등의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러한 것들을 초극해 보려는 수법으로 상대방들을 때로는 자기 자신들까지를 공격적 대상으로 삼게 되고 때로는 술과 마약 등으로 자기 자신들의 이성을 마비시켜간다고 하는 것이다. 필자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적잖은 현대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이 식민지시대에 일제로부터 의식 무의식적으로 주입당한 그들의 「신국」 의식에 한국인들의 사고가 아직까지도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태극기부대 등과 같은 집단들이 출현하고, 「갑질」 테러 등과 같은 것들이 횡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갑질」을 자제해가고 「미 투」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가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제강점기체험을 통해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의식 속에 내재된 공격적 이미지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해소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의 해소방법들 중의 하나는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불안케 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 또는 미국 대 중국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대립적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남한도 북한도 한국민족의 통일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설혹 미국이 트럼프정권의 중간 선거를 의식해가고,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 간다 하더라도, 남한의 문재인 정부만은 여당의 정권연장을 우선 시 하지 말고, 한국민족의 통일 로드맵의 초석을 놓는다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간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남한은 미국보다도 북한 편에 서서, 또 북한은 중국보다도 남한 편에 서서,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첩경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입장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 자는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자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주

-
- 1) 이명박 『신화는 없다』(김영사,1995),p.37
 - 2) 이명박 『신화는 없다』(김영사,1995),p.37
 - 3) 기타바타케 지카후사,『신황정통기』(남기학,소명출판,2008) p.12
 - 4) 기타바타케 지카후사,『신황정통기』(남기학,소명출판,2008) p.11
 - 5) 교주자(校注者),『日本書紀(上)』(日本古典文学大系67,岩波書店,1967,p.339)
 - 6) 기타바타케 지카후사,『신황정통기』(남기학,소명출판,2008) p.16
 - 7) 김부식『삼국사기 I』(이강래 역,한길사,1998),p.87
 - 8) 김부식『삼국사기 I』(이강래 역,한길사,1998),p.91
 - 9) 권오엽 『광개토왕비문의 세계』(제이앤씨,2007),p.46
 - 10) 권오엽 『광개토왕비문의 세계』(제이앤씨,2007), p.94
 - 11) 권오엽 『광개토왕비문의 세계』(제이앤씨,2007),p.96
 - 12) 이재석,「4~6세기 왜국의 대외위기관과 그 실제」,(김현구 편저,『일본의 대외위기관과 팽창의 역사적 구조』제이앤씨,2008), p.15
 - 13) 遠山美都男,『白村江-古代東アジア大戦の謎』(講談社,2007), p.227
 - 14) 遠山美都男,『白村江-古代東アジア大戦の謎』(講談社,2007), p.221

참고문헌

기타바타케 지카후사(2008) 『신황정통기』 (남기학,소명출판)
 권오엽(2007) 『광개토왕비문의 세계』 (제이앤씨)
 권오엽·권정역(2007) 『고사기(중)』 (,고즈윈)
 이강래 역(1998)김부식 『삼국사기 I』 (한길사)
 이명박 『신화는 없다』 (김영사,1995)
 이재석(2008) 「4~6세기 왜국의 대외위기관과 그 실체」,(김현구 편저, 『일본의 대외위기관과
 팽창의 역사적 구조』 (제이앤씨)
 「조선일보」 (2018.5.29. 화), A6면
 「井上光貞 他(1992) 『日本史』 (山川出版社)
 岩波書店校注者(1967) 『日本書紀(上)』 (日本古典文学大系67)
 遠山美都男(2007) 『白村江-古代東アジア大戦の謎』 (講談社,)
 契沖(1690) 『万葉代匠記』 (, 『万葉集』 注釈書,年)
 姜東鎮(979)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1920年代を中心として』 (東京大出版会)
 立花隆(2005) 『천황과 동대』 (天皇と東大,文藝春秋,,)
 横井忠直(1884) 「高句麗古碑考」 (東京都立日比谷圖書館藏)

Abstract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Modern Koreans and the Modern Japanese Consciousness of 'Divine Nation'

Kim, Chae-Su

The Japanese defined their country as a "divine state" as a way to cope with the expand of the Western powers toward easter countries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So, through the education for the people of the Japanese Empire, they instilled such thoughts into the consciousness of themselves and Koreans in the colonies. As a result, the Koreans are still in a state where they have not completely escaped from such fictitious, self-deceived thoughts injected from them at this time.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modern Koreans is formed based on such a fictitious and self-deceptive thought that was injec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reason that such a false idea form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Korea remained without being dismantled or refin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since liberation is that after the liberati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promoted the globalization of capitalism against the promotion of the Eurasian continent of Soviet communist forces. It was because of the urgency that it would be used as a shield for the South Korean people of the communist forces by unifying Korea, which was a colonial country of Japan before the liberation and Japan, in order to get rid of it. As a result, we can see that the origins of the conducts of 'Gapgil' or 'Me too' movements that cause serious social problems in Korean society now are derived from consciousness of the self-deceitful 'divine nation'.

Key Words : Divine national consciousness, Ethical consciousness of modern Korean people, korea- conquest theory, Yoshida Shoin, Japanese colonial period, Empress of the shrine

논문 투고일: 2018. 6. 10.
 심사 완료일: 2018. 6. 15.
 게재 결정일: 2018. 6. 30.